15 광령천 학술 탐사

광령천 주변 마을의 민속자료

양 종 렬
제주교육박물관

1. 노형동(해안동)

1.1. 연자방아

밭작물인 곡식의알 껍질을 벗길 때 사용하는 연자방아는 제주도에서는 말방아, 물ᄀᆞ레, 말방애, 연자마. 언자매 등으로 불린다. 1960년대 까지만 하여도 마을내 반별로 하나씩 있었으며, 말방아 1기당 10~20가구가 공동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사용하는데에는 '말방아계' 라는 규약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운용하였고, 이와 더불어 집안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도 함께 나누는 상부상조의 밑받침도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 말방아는 기계로 돌리는 방앗간에 밀려 서서히 사용을 하지 않았다. 말방아는 아랫돌, 윗돌, 방아틀로 구성되었고, 말이나, 소를 이용하여 윗돌을 돌리며 곡식을 탈곡하였으며, 혹가다가 사람이 직접 돌리기도 하였다. 제주도에 있는 민속자료를 1972년 문화공보부에서 전체적으로 민속자료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여 제주도에 남아 있는 연자

방아 중 제일 상태가 좋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연자마 2기를 1975년 10월 13일 중요민속자료 제32호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다. 그 대상은 애월읍 하가리 잣동네와 애월읍 신엄리 당거리동네에 있는 연자방아이다.

가. 해안어린이집 부근 공터 연자방아

여기에 있는 연자방아는 최근에 만들어서 교육용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방아로 연자틀은 없다. 크기를 보면은 아랫돌 높이 50cm, 지름 195cm, 아랫돌 윗면 가의 둘레 지름은 15cm, 윗돌 지름 87cm, 폭 38cm이다. 재질은 다공질현무암으로 노여진 공간은 어린이 체험용 공간으로 조성중에 있다. 윗돌이 하나더 있다. 이 그 크기는 지름 82cm, 폭 38cm이다.

나. 해안초등학교

정문을 지나 교실에 당도하기전 우측 공터에 나무 꽃동산을 만들고 어린이 민속자료 교육장을 만들었다. 연자방아는 큐모가 작지만 연자방아틀도 없이 바닥에 아랫돌과 윗돌이 있다. 아랫돌은 반으로 쪼개져 있다. 아랫돌 윗면은 가운데가 볼록하여 밖으로 경사지면서 밑으로 흘러지게 되어 있는 상태이다. 원형 윗면 끝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 껍질을 벗겨지는 곡식알이 경사로를 타고 내려갈 수 있다. 크기는 아랫돌 지름190cm, 높이 지면에서 35cm, 윗돌 지름 78cm, 폭 32cm이다.

다. 해안마울 8갈 8-1 앞 정나무

마을안 팽나무 밑 휴식공간을 만드는 둥근시멘트평면좌석을 만들면서 땅속에 묻힌 연자방아 윗돌 2개가 있다. ① 지름 87cm, 폭 32cm. ② 지름 95cm, 폭 38cm

라. 해안마을 7길 40앞 밭담

마을안 밭 울타리를 만든 담에 끼워 있는 연자방아 윗돌2개가 있다. 윗돌 크기는 ① 지름 96cm, 폭 37cm, ② 지름 79cm, 폭 37cm 이다.

초등학교내 연자방아, 정주석

해안마을 7길 밭담

해안어린이집부근 공터

정면

마을안길돌방아
윗돌종으로본

1.2. 정주석

제주도 전통초가의 정문으로 이문간도 있지만 초가 울타리인 담에 세워서 정문으로 사용하였다. 한길인 신작로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을 지나 집안으로 들어가는 입구 울타리 양쪽에 세워진다. 재료는 돌과 나무가 있다. 양쪽으로 걸치는 둥근 나무를 끼워 소나 말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집안에 사람이 있고, 없고를 표시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는 제주초가 마당에는 날씨가 좋은날에는 여러 곡식을 말리기 위하여 마당에 멍석을 깔고 널려있다. 소나 말들이 들어가 이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어른들이 집을 비울때에는 정문에 나무를 양쪽에 걸쳐놓았다. 정주석에 걸쳐놓는 둥근 나무를 '정낭' 이라고 한다. 정주석에는 정낭을 끼우는 구멍을 뚫러 놓는다. 이 구멍은 3~4개가 있다. 초기에는 구멍이 3개 였으나 근래에는 4개의 구멍을 뚫린 정주석을 종종 볼 수 있다.

가. 해안어린이집 부근 공터

놀이 공간겸 어린이 교육용 공간으로 조그만 정주석도 함께 있다. 전시용으로된 정주석은 구멍이 2개로 크기는 ① 높이 63cm, 폭 40cm, 두께 13.5cm이다.

나. 해안초등학교내

어린이교육용으로 동네에서 사용하던 자료로 전시용으로 구멍이 3개가 있다. 크기는 ① 높이 82cm, 폭 20~27cm, 두께 11~13cm, ② 높이 93cm, 폭 25~30cm, 두께 15cm이며 구멍의 크기는 대개 지름이 11cm, 12cm이다.

정주석 근경

정주석 원경

해안어린이집 부근 공터

1.3. 기타

가. 개인집 소장 맷돌

마을회관 앞 맷돌이 있었으며 크기는 지름43cm, 윗돌 높이 7cm, 아랫돌 높이 9cm가 있다. 현관 앞 베란다에 놓여 있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네 조상들이 사용하였던 민속자료들을 한 가정에 한 두 개 이상 보관하는 것도 좋은 의미일 것이다. 비록 현재는 사용하지는 않지만 자라는 어린이들은 보는데에서도 배우는 것이다.

나. 해안초등학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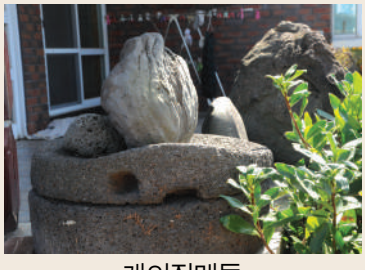
어린이 교육용 전시물로 선인들이 사용하였덩 농구들인 맷돌(곡식의 알갱이를 분쇄하는 농구로 윗돌과 아랫돌이 겹치고 윗돌 옆면에 박혀진 나무손잡이(어처구니)를 돌리면서 윗돌 중간 구멍에 넣어지는 곡물을 분쇄하여 옆으로 흘러 니오는 기구), 돌화로(?불을 넣어 집안에서 난로로 사용하는 난방용구), 듬돌(마을어귀 정자나무 밑이나 공터에 놓아 외부 청장년이 들어올때 이돌을 들어 올리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으며 - 일종의 텃세를 부린다고 한다, 어린이들이 청년이 되어서 힘을 자랑하는 도구로도 사용하였다.) , 돌구시(돌구유라고도 하고 돼지나 소먹이통을 말한다.) 등이 있었다. 그 크기들은 다음과 같다. ① 맷돌 2개 지름 40cm, 높이 18cm, 다른 1개는 지름 40cm, 높이 20cm ② 돌화로 두동강으로 나있다. 길이 30cm, 폭 16cm, 높이 10cm, 두께 5.2cm ③ 돌구시 길이 39cm, 폭 37cm, 높이 19cm ④ 듬돌은 원형이나 이 듬돌은 타원형이라 가로 세로 높이로 크기를 측정하였다. 가로 45cm, 세로 35cm, 높이 35cm

학교내듬돌

돌화로

돌구시

학교내맷돌


개인집맷돌

2. 외도 1동

2.1. 외도동 민속보존회

◈ 외도민속보존회(외도동합동)

외도동에는 민속보존회를 결성하여 우리의 전통민속을 이어가고 있다. 목적은 본회는 외도동 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에 참여할 뿐 만 아니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이다. 각종 문화행사에서 걸궁 등으로 참여하여 많은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 2012년도 활동

• 외도동 민속보존회 활동상황

외도동 민속보존회(회장 문두희)는 지난해 민속보존회 회원 30여명은 제주올레 17코스 외도 구간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올해도 2월 12일(일)시작으로 매월 담당 구간인 창호교~알작지 환경정화 및 탐방로 훼손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면서 올레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올레 가꾸기에 적극 앞장서나가고 있다.

• 외도동민속보존회

외도동민속보존회. 탐라대전 풍물경연 한라상 수상!

외도동민속보존회(회장 문두희)에서는 2012. 9. 21(금)제51회 탐라대전 제주시 축제의 날 행사시 풍물경연에서 단원 28명이 참여하여 제주시 19개 읍면동 민속보존회 가운데 지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3년 연속 한라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외도동민속보존회는 전통의 맥을 잇기 위하여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입춘 굿 놀이 등 꾸준히 각종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모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2년도 12월에 2013년도 회장으로 안창중회원이 뽑혔다. 안창중 회장의 도움으로 민속보존회 회칙 일부를 실어본다.

외도동 민속 보존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외도동 민속보존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외도동 문화의 전통을 계승 발전하고 각종 문화 예술 행사에 참여할 뿐 만 아니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외도동 주민센터에 적을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과 구성) : 2010년12월31일까지 외도민속보존회에서 활동했던 분에 한해서 남녀노소 제한 없이 외동동의 적을 둔 분, 그리고 타 지역 분들로서 외도동 민속보존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헌신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풍물에 소질이 있거나 열의가 있는 분으로 구성한다.

(단) "2011년1월12부터 본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외도지역 주민인 남녀노소 또는 타 지역의 분들로서 정회원의 조건으로 민속보존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분에 한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의를 거친 후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의결의 되면 정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2장 회 의

제5조 (회의구분) 본회는 정기총회, 임원회의 및 임시회로 구분한다.

제6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 소집하며 회의 일주일 전 개별적으로 통신에 의해서 통지한다.

제7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 본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때 이를 소집 한다.

제8조 (임시회의) 임시회는 회원10인 이상 요구 또는 회장단(회장,부회장, 총무)의 필요에 따라 회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3장 회의의 기능 및 의결

제9조 (정기총회의 기능)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개정
2. 사업 계획
3. 임원 선출
4. 예산 편성
5. 결산 보고
6. 기타 사항

제10조 (임원회의 기능)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본회의 기본적인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2. 예산 심의 및 결산에 따른 본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총회의 상정할 회칙 개정 등 모든 의안들을 사전 심의 의결.

제11조 (임시회의 기능)수시로 도출되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안들을 심의 결의한다.

제12조 (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회 임원회의를 제외한 모든 회의의 성원은 출석 인원을 정족 수로 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

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의는 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70%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원구성 및 직무

제13조 (임원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자문위원 : 약간 명
2. 회 장 : 1 인
3. 부회장 : 2 인 (남녀 각 1인) 중 수석부회장을 정한다.
4. 감 사 : 1 인
5. 총 무 : 1 인
6. 운영위원 10명을 두되 상황에 따라 추가 또는 감축할 수 있다.
7. 상 쇠 : 1 인
8. 부 쇠 : 1 인

제14조 (임원선출) 임원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문위원은 회장 임기가 만료된 분으로서 우선 추대를 하고 그외로 본회 운영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분.
2.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3. 총무와 운영위원은 회장이 지명 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4. 상쇠와 부쇠는 각종행사에 따른 꽹가리 기량과 리더쉽이 뛰어난 분으로서 정기총회의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문위원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심 역할을 한다.
2.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원회의 또는 임시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를 총괄 대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손과 발이 되어야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남은 잔여기간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 회의 사업 및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를 정기총회시 보고한다. (단)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제시 등은 할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5. 총무는 회장의 명에 의해서 본회의 재정 또는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6. 운영위원은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대하여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심의하는데 적극 도와줘야 하며 본회 운영에 자원봉사자라는 희생정신으로 전체의 회원을 위해서 집행부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
7. 상쇠는 본회의 각종풍물행사시 출전 구릅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막대한 책임과 임무를 가진다.
8. 부쇠는 출전하는 구릅이 흐트러지지 않게 조절하는 의무를 수행하면서 상쇠의 보조역할을 한다. (단) 상쇠 유고시 그 직무를 총괄 대행한다.
9. 상쇠와 부쇠도 타 임원의 직무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2. 임기 중에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장 사업 및 재정

제17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외도동 옛 문화의 전통을 발굴 또는 발전에 따른 사업
2. 각종 문화 예술 행사에 참여하는 사업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4. 어려운 회원 또는 이웃을 돌아보는 사업
5. 외도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사업

제18조 (재정)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 또는 기타 활동 등으로 인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9조 (회비) 1. 회비는 년1회 납부하며 (5 만원)으로 정한다.

2. 기타 찬조금 또는 성금은 수시로 접수한다.

제20조 (예산편성) 본 회의 회장단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정기총회에 의안으로 상정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21조 (결산) 본 회의 결산은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경조사)

① 본인 및 배우자 초상.
② 부모님 (배우자 부모 포함)의 초상.
③ 일반 경사 (본인 또는 자녀 결혼, 입주, 개업 등).
④ 회원이라 할지라도 본회 운영에 비협조적이면서 연회비 1회 미납된 자는 별도 관리.
⑤ 지역 경조사(마을, 자생단체) 및 각종사회 봉사 성금 등

1. 본인 및 배우자 초상 : 운영자금을 이용 조의금 10만원을 한다. (단) 상주의 의사에 따라 현금 또는 금액에 준하는 화환으로도 할 수 있다. 참가자 개인별 조의금은 2만원씩 갹출해서 한다.
2. 부모님(배우자 부모포함) 초상 : 운영자금을 이용 조의금 10만원을 한다. (단) 상주의 의사에 따라 현금 또는 금액에 준하는 화환으로도 할 수 있다. 참가자 개인별 조의금은 1만원씩 갹출해서 한다.
3. 일반경사 : 본인 또는 자녀결혼, 입주, 개업 등 〈등 이라 함은 전회원을 초대하는 경사를 말함〉 공금을 이용 축의금 5만원을 하고 참가자 개인 축의금은 1만원씩 갹출해서 한다,
4. 별도관리 대상 회원 (경조사) : 공금은 이용 하지 않으며 참가자 개인별 경조금은 개별적으로 자율에 맞기는 것으로 한다.(단)공지 사항 알림 방법은 일반 회원과 동일하게 한다.
5. 본회의 지역 경조사인 경우에는 건당 5만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목별에 따라 회장단에서 적절하게 집행하고 총회시 보고한다.
6. 기타 축의금은 회장단이 필요에 따라 집행 하고 총회 시 보고한다.

3. 외도 2동

3.1. 푸는체

11월 마침 현장 답사를 갔는데, 밭에서 아주머니 한사람이 앉아서 콩을 선별하고 있었다. 아주머니는 30년전에 오일장에서 푸는체를 사가지고 왔다고 한다. 푸는체는 키라고도 한다. 제주도 골채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재료는 나무껍질로 바위와 밑면을 둘렀고 크기는 길이58cm, 너비49cm, 뒤쪽면 높이8cm이다. 푸는체는 이씨성할머니(나이와 성함을 알려주지 않았다.)가 1980년경 제주시 오일장에서 사서 쓴다고 하였다.

푸는체에서 콩 이물질 고르기

푸는체

3.2. 월대

월대 위치는 외도 해변가에서 무수천으로 연결된 도근내에 있다. 사시사철 물이 흐르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바다를 거쳐 포구까지 배가 드나들었다. 배에 조공을 실어 났다하여 '조공천'이라고도 하였다. 주변에는 500년된 팽나무들이 있어 여름에는 선비들이 여기에서 시간을 보냈다. 월대 앞을 흐는 외천을 월대천이라고 하고, 이 천은 바다와 만나는 천으로 민물과 바닷물이 공존하여 뱀장어와 은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다. 지금 이곳에는 조선시대에 다녀갔던 목사들의 비석들이 놓여 있다.

- 사상윤공구동휼민선정비
  크기는 너비46cm, 높이80.5cm, 두께10cm이다. 윤구동목사는 순조15년(1815) 5월에 부임하여 순조17년(1817) 10월에 형조참의로 전출하였다. 순조 17년에 제주도에 흉년이 들자 육지부에서 곡식을 수입하여 두민을 구휼하였다.
- 사상김공00청덕휼민만세불망비
  크기는 너비38cm, 높이68cm, 두께10cm이다. 이름이 마모되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 사상양공헌수선정비
  크기는 너비35cm, 높이53.5cm, 두께13cm이다. 양헌수목사는 고종원년(1864) 3월에 부임하여 고종3년 8월에 승지로 전출하였다. 삼성사의 제전(祭田)를 마련하였고, 백성의 교학에 힘을 썼다.

비석군

월대천

월대비석

- 월대비석

크기는 너비38cm, 높이68cm, 두께13cm이다. 홍종시가 글을 썼다. 글씨는 월대(月臺)로 음각하여 맑은 물에 달이 비치고, 경치가 좋아서, 이 곳을 가르키는 말을 기념하여 비를 세웠다.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숲 사이로 떠오르는 달이 맑은 물가에 비치는 광경을 보는 누대라는 뜻으로 월대라 하였다.

월대 주변에는 보호수인 해송 나무들이 많이 식재 되었다. 1982년 10월 22일에 지정되었다. 수령 270년에 수고12m, 나무둘레28cm이다.

3.3. 연자방아 윗돌

외도동1,2동에는 3개의 말방아가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말방아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터는 도근내서착, 우렝이마을, 고망물에 있었다.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60년대 방앗간이 생기면서 서서히 사라졌다고 하였다.외도1동에는 연자방아 윗돌 2개가 있다. 제주 올레길 17코스 외도동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암 불사가 바닷가와 접해 있다. 이 대원암 정문 앞 해변을 끼고 스포츠 운동기구들이 놓여 있다. 이와더불어 운동기구 사이에 말방아윗돌 2개가 겹쳐 있다. 크기는 지름81cm, 폭25cm이다.

3.4. 돌하르방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2호로 지정된 돌하르방도 모양을 조각하여 대원암 정문에 세워져 있다. 이는 제주자치도 돌하르방 문화재를 이용하는 실례중 하나이다. 돌하르방은 집또는 사찰 입구가 아니라 조선시대 제주도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청 성문앞에 세워 이정표및 수호신 기능 등으로 사용했었다. 돌하르방은 다공질현무암으로 조각을 하였고 그 크기는 앞 너비50cm, 높이150cm, 폭45cm, 앞 너비50cm, 높이200cm, 폭45cm이다.

대원암입구 돌하르방

3.5. 정주석

정주석은 외도1동 다리 밑 바닷가 접경에 노인과 바다 횟집(월대5길6번지) 앞마당에 2기 1조가 놓여 있다. 외부에서 들여온 듯하며, 식당 전시용 인듯하다. 재료는 다공질 현무암으로 돌에는 이끼가 많이 끼여 있다. 크기는 폭39cm, 길이104cm, 폭43cm, 두께14cm, 길이101cm이다. 정주석의 상태는 위는 굴곡이 심하고 매끄럽지 않지만 보통이다.

정주석

3.6. 방사탑

마을의 재앙을 방지하고, 평온을 위한 기능으로 마을에서는 돌들을 모아 원뿔형의 탑을 쌓았다. 외도동에는 마을 해변에 육지에 가까운 곳인 동서로 서로 마주보게 만들었다. 거리의 간격은 300여m로 서쪽은 숫탑, 동쪽은 숫탑이다. 원래는 암탑과 숫탑을 쌓는데 외도동에는 숫탑만 쌓았다. 숫탑은 3단으로 대원암불사 앞 바닷가에 위치한다. 또한 숫탑은 헤이데이 커피숍 앞 바닷가 월대쉼터서쪽에 위치한다. 원뿔형으로 숫탑을 3단으로 쌓았다. 방사탑 숫탑의 크기는 밑지름 420cm, 1단 높이360cm, 2단 높이150cm, 3단 높이70cm 그 위에 새의 형상 돌을 꼽혀있다. 규모가 다른 탑들보다 크다. 1단의 돌들은 큰 암석들을 모아 쌓았다. 커피숍 옆에 있는 탑의 크기는 밑지름430cm, 1단 높이214cm, 2단 110cm, 3단 높이 60cm이다. 3단 위의 표면은 원형으로 평평하다. 그 위에 새의 형상인 돌을 세웠다.

돌방아윗돌(체육시설과 함께)

커피숍 앞 방사탑

대원암 앞 방사탑

3.7. 기타

◈ 대원암 불사

불사는 외도동 해변가 올레 17코스에 접해 있는 절로 죽림정사 제주분원 대원암이다. 종파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2006년 5월 25일 주지 법산스님이 제주시 외도2동에 정착하면서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을 현몽하여 발견하였다고 한다. 주지 스님은 제주의 자연경관과, 올레코스와 접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대원암 앞 바다에 해수석상과 미륵, 달마, 관음, 산신, 용왕, 아기곰, 토끼, 양, 사자, 곰, 포대화상, 약사, 나안, 거북이, 코끼리등 16종의 다양한 해변의 돌들의 형상을 창안하여 불교 명승지로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바닷물이 썰물이었을 때에 보인다.

불당

산신단

대원암 불사 뒤 해변

4. 도평동

4.1. 연자방아

도평동에서 곡식들을 거둬들인 후 껍질을 벗기던 말방아는 도평동 1351-10번지 공터에 체육시설 기기들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도평초등학교 뒤 도로 건너 신호등 사거리 슈퍼 옆에 있는 마을 보호수(수령 330년 된 팽나무, 들레 3.2m, 수고 18m)와 함께 마을에서 교육용으로 있는 것 같다. 말방아는 아랫돌과 윗돌로 시멘트로 고정 시켰다. 그 크기는 아랫돌 지름 160cm, 높이 38cm, 윗돌 지름 95cm, 폭 39cm이다.

4.2. 벵듸 포제단

도평동의 포제는 매년 8월 13일 여름에 마을의 무사안녕과 반영을 위하여 기원을 빌고 있다. 마을민들이 십시일반으로 5,000원 씩 낸 성금을 가지고 청년회에서 주최를 하여 제를 거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민들은 소극적이라고 한다. 이는 각기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도 다수 있기때문이기도 한 듯 하다. 마을에서 포제로 제단을 구성하는데 검은 돼지를 잡아 올렸다. 이때 도청 문화재 관계, 동사무소에서는 지주로 제주와 제물을 보내고 있다. 제관은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운영위원들이 3인을 뽑는다. 포제단은 돌담으로 사각형으로 울타리를 쌓았다. 서쪽에 트여 있어 통행을 한다. 크기는 11m, 와 16m로 외돌담 높이 136m치다. 울타리 안에는 벚나무와 동백나무를 돌아가면서 식재하혀 조경을 하였다. 제단으로는 대리석으로 너비 74cm, 길이 151cm, 두께 15cmfh 받침 높이 20cm, 지름 16cm로 4개로 받치고 있다. 그 외 제주를 놓는 단과 향을 놓는 단도 있다. 제단 서쪽 구석에서 제관들이 모든 일들을 하였다.

포제단

술잔 놓는 단(서쪽)

도평동 포제유적입구

5. 광령 1리

5.1. 연자방아

광령 1리에는 현재 사용하는 연자방아는 없으나, 선인들의 민속자료들을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마을 공터 2곳에 설치하고 있다. 연자방아는 1970년대 급속히 정미소와 탈곡기가 보급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광령 1리도 여느 동네와 마찬가지로 직접 동네에서 연자방아를 만들어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재료는 주변에 있는 다공질 현무암을 사용하였다.

가. 당동산 연자방아와 연자방아 윗돌

무수천 삼거리에서 광령 시내 초등학교를 지나 마지막 코너에 자동차 정비센터가 있고 앞에는 팽나무가 식재된 동산이 있다. 이 당동산은 2008년에 조성되었다. 동산에는 마을의 쉼터를 만들어 휴게 의자, 체육기기 등을 시설하였다. 체육 시설 여유 공간에 학생들이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민속자료인 연자마 1세트와 말방아 윗돌 2개가 널려 있다. 그 중 말방아의 크기는 아래돌 지름 151cm, 높이 48cm, 윗돌 지름 83cm, 폭 43cm이다. 윗돌 하나의 크기는 지름 83cm, 폭 48cm, 가운데 구멍은 지름 47cm, 깊이 15cm로 돌방아 형태로 제작하였고, 또 하나의 말방아 윗돌의 크기는 지름 70cm, 폭 28cm이고, 가운데 구멍은 사각형으로 12*10cm이다.

나. 휴게동산 연자방아 윗돌

복지회관및 리사무소 건물 왼쪽 편 한라산 방향으로 조그만 골목길이 잇다. 마을 안 주요 도로에서 동산으로 한라산 쪽으로 50여m를 지나면 휴게 공간으로 편의시설을 조성한 조그만 동산이 있다. 그 곳에 말방아 윗돌 2기가 놓여 있다. 말방아 윗돌 크기는 지름 76cm, 폭 35cm와 지름 71cm, 폭 33cm이다.

말방아(연자방아)

말방아윗돌

당동산

말방아윗돌 이용 돌방아

마을휴게소 말방아 윗돌

5.2. 정주석

올레길 정주석

정주석은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 대신에 울타리 양쪽 담에 세워두어 제주도 현무암을 재료로 만든 기둥을 말한다. 정주석의 재료는 나무로도 만든 정주먹이 있다. 이는 오래가지를 않아 오래 가고 변치 않는 다공질현무암을 이용하였다. 정주석은 2개가 1조로 각각에 길다란 원통형의 정주목을 끼우는 구멍이 있다. 하나의 정주석에는 3~4개의 구멍이 있다. 광령 1리에는 지금도 정주석을 대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금 리민회관 뒤쪽 동네에는 두 세대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정주석의 대부분이 정문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주목은 없다. 또한 자연석을 이용한 정주석도 있었다. 휴게소 옆 공방의 입구에 있는 정주석의 크기는 너비37cm, 높이82cm, 두께15cm, 받침은 길이44cm, 너비17cm, 높이23cm, 다른쪽 하나의 크기는 높이88cm, 너비37cm, 두께13cm, 받침대는 길이46cm, 너비20cm, 높이17cm로 정주석 구멍이 4개이며, 현재 대문 역할을 하고 있다. 휴게소 골목길 광령8길16-1번지에 있는 집의 입구에는 올레길을 접하고 있는 부분으로 집의 입구와 마당 사이의 거리가 30여m로 길다. 여기에 있는 정주석은 가정집의 울타리가 올레길과 접해 있는 부분 사이에 끼워져 있다. 정주석의 구멍은 4개이다. 정주석 크기는 높이86cm, 너비33cm, 두께13cm, 받침대는 길이60cm, 너비32cm, 높이42cm이며, 다른쪽 정주석의 크기는 높이96cm, 너비35cm, 두께17cm, 받침대는 길이47cm, 너비22cm, 높이27cm이다. 그 옆집 마을안길14번지 집은 자연석을 이용한 정주석으로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에 이사 올때 한쪽의 자연석 정주석은 전에 있던 주인이 가지고 갔다고 한다. 북쪽에 남아 있는 정주석의 크기는 높이130cm, 너비80cm, 두께55cm로 조경석으로 적당한 크기와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돌을 한면에 구멍을 4개를 뚫고 입구에 정문을 대신하고 있다. 이 정주석의 석질은 다공질 현무암이 아니다.

광령8길 14번지

광령8길 10-1 왼쪽

광령8길 10-1 오른쪽

공방 입구 왼쪽

공방 입구 오른쪽

공방 입구

5.3. 옹기 가마터(남죽동)

제주도 전지역에서 생활에 필요한 생활옹기들을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대정읍(모슬포 구억리), 고산 등에서 많이 구었고, 실생활에 필요한 물허벅, 항아리, 장단지, 그릇, 병 등등 여러 종류의 그릇을 제작하였다. 광령 1리에서는 1870년경 서귀포시 대정에서 신재영의 조부가 남죽동에 이주하여 옹기그릇을 굽기 시작하였다.

가. 남죽동 노랑굴

남죽동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저수지가 있고 연료인 땔감을 구하기 쉽다. 지금은 가마가 없으며, 동네 사람들에 의하여 구전으로만 터를 확인 할 수 있다. 동네에서 1960년대까지 옹기를 만들어 사용하였고, 제주시내로 짊어지고 걸어서 판매도 하였다. 가마터인 과수원자리에서 파편들을 수집할 수 있다. 이굴에서는 홍기인 항아리, 병, 사발 등 생활에 필요한 용기들을 제작하였다.

나. 남죽동 검은굴

노랑굴 터와 인접한 곳에 있는 검은굴 터이다. 검은굴에서는 지세그릇을 만들거나 기와를 구웠다. 노랑굴 구조와 검은굴 구조가 차이가 있다. 경사진 동산을 이용하는 것은 같으나 굴 내부는 조금씩 다르다.

다. 주물

여기에서의 주물은 생활에 사용하는 용기인 발솥, 농기구인 쇠스랑, 쟁기인 보습 등을 말한다. 제주도에는 주물을 처음 만든 곳은 서귀포시 덕수리,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와 청수리로 지금도 조수리에서는 재현을 하고 있다. 광령리에서의 주물 제조는 1920년경 고창호가 풍구를 이용한 불미왕을 만들어 농기구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그후 대정에서 입주한 고태령에 의하여 지금의 리민회관 동쪽 부근에 공장을 만들어 솥, 볏, 보습, 호미 등을 생산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5.4. 효자 진대석

- 소재지 :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
- 크기 : 자연석 위에 글씨 새김 높이 66cm,
  폭 36.5cm, 두께 11cm

비석

정려비는 무수천 사거리에서 평화도로의 제주관광대학 진입로 우측 형제의 집 입구에 있다. 원래에는 작은 예수의 집 근처 동산에 있었다.진대석은 광령리 사람으로, 보병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어머니가 각기병이 있어 앉고 일어설 때 사람이 필요하였다. 보병으로써 당번을 설 때에는 어머니를 업고 와서 쌀을 얻어 공양하였고, 당번이 끝나면 업고 여러 군데를 돌아 다니면서 먹을 것을 갖추었다. 대석은 아내를 얻고 자식이 태어나면 어머니에 대한 공양이 허술 할까 바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살면서 어머니를 공양하니, 나라에서는 인조 12년(1634)에 정려하였다.(속수삼강록의 기록)

6. 광령 2리

6.1. 연자방아

광령 2리에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말방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촌로로 하여금 1980년대 초까지만 하여도 말방아가 있었다고 하였다. 지금은 그 터밖에 없다. 그 지역은 냇카름, 웃카름, 동카름, 퐁나모기, 앞밧, 상터, 작수왓 7군데에 있었다. 그 흔적도 볼 수가 없다.

6.2. 정주석

리사무소와 복지회관 뒤편 동산인 광령 남 3길 7 앞에 거악대 물통이 있다. 그 물통 출입구 양쪽에 놓여 있다. 크기는 길이 73cm, 폭42cm, 두께 18cm, 구멍은 3개로 사각형인 방형으로 되었고, 크기는 10.2cm, 11cm이다. 다른 쪽은 폭 32cm, 길이 66cm, 두께 21cm에 구멍은 3개로 11cm, 10cmdlek. 한쪽 정주석 앞면은 안쪽으로 함몰몰 되었고, 가공되었다. 뒷면은 자연 그대로 되었다.

6.3. 동자석

마을 리사무소 오른쪽에서 뒤편으로 조그만 길이 나있다. 동산이면서 거악대물을 지나 양갈레길이 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간다. 제주관광대학 뒤편 가기전 중간쯤에 도로 오른편에 양배추밭이 있다. 양배추밭과 도로에 붙은 접경에 광주김씨 묘가 있다. 동자석은 묘의 앞쪽에 양옆으로 문인석, 장군석, 망주석 등과 함께 서있으면서 묘를 장식하고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한다. 동자승을 닮아서 동자석이라고 한다. 동자석은 조선시대 중기부터 제주도 묘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동자석의 앞면에는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 형상은 동자승과 같이 머리는 삭발하여 있고, 몸에는 옷을 입은 형태의 조각이 나 있으며, 손에는 홀, 화살, 삼각형 등 여러 가지 모양을 들고 있다. 여기에 있는 동자석은 양손을 가지런히 배에 얹혀 있다. 뒷면은 홈으로 옷을 입은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동자석은 2기로 크기는 길이 59cm, 앞너비 23cm, 앞과 뒤 두께24cm이며. 머리 길이는 24cm이다. 다른쪽 동자석의 크기는 길이 59cm, 앞너비 33cm, 앞과 뒤 두께23cm이며. 머리 길이는 24cm이다. 비록 몸에는 이끼들이 끼워있었지만, 보존상태는 양호하였다.

산담안 동자석

동자석 1

동자석 2

6.4. 거악대물통

복지회관 및 리사무소 뒤편 동산에 있는 물통으로 부근에 거악대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상수도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물을 식수로 사용하였고, 지금은 채소를 씻고 여름에는 목욕을 하는 물로 사용한다. 동상 위쪽인 동쪽 방향에 생수가 나는 쪽에는 네모나게 물통을 만들고 서쪽으로 길게 폭이 작아졌다가 넓게 직사각형으로 내려 오고 마지막으로 다시 몰통을 직사각형으로 마감하였다. 이곳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집안일들을 하였고, 이야기 꽃을 피우는 장소이기도 하였다. 빙 둘러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높이 165~240cm 돌담을 쌓았다. 돌담은 외담으로 밑에는 시멘트이고, 위는 밭담으로 촘촘히 쌓았다. 울타리 안쪽에는 물통 을 가운데 두고 양옆 울타리에 붙여서 물건을 놓을 수 있는 팡을 시멘트로 만들었다. 크기는 폭 53cm, 길이 443cm, 높이 93cm, 길이 398cm, 폭 56~85cm, 높이 85cm이다. 물통 입구 폭은 68cm로 사람이 통행하였다. 이 또한 약간 곡선을 주어 울타리 안쪽 물통의 광경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생수가 내리는 물통의 길이가 동서로 584cm이다. 그 외 광령리 796번지 제주관광대학교 주변 주유소 근방에 광령 2리 사람들이 막던 샘물이 있었다. 이곳은 '정연물' 이라고 불린다.

입구

물통내부

물통받침

6.5. 전설

가. 신집(신댁)며느리 여장부 홍할망

여장부 홍할망은 홍말김의 딸이며 남편은 신세적이다. 홍할망은 시아버지가 타계하자 장지를 현 유신동 동카름에 있는 서원이동산으로 정하여 장사를 지내게 되었다. 묘자리가 명당이라 마침 옆동네 모씨댁에서도 갖은 장소에 묘자리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묘자리를 차지하려고 각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났다. 물리적힘으로 신씨 집안이 몰리고 있었다. 그때 하관 시간이 다다랐다. 모씨 집안에서 하관을 하려고 시신을 운반하고 있을 때, 홍할망이 혼자서 시아버지의 운구를 한 손에 들고 다른 한손으로 말캔낭을 들어 모씨 집안의 역사꾼들을 후려치면서 물리쳐 당당히 시아버지 시신을 시간에 맞게 안장하였다. 그이후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나 '신집 며느리로 여장부 홍할망' 이라 하였고, 이후 신씨 집안이 홍하였다고 한다.

나. 힘센 장사 최둥이

옛날 이 마을에 최둥이란 힘센 장사가 있었다. 최둥이는 힘은 세었으나 매양 가난하여 산에 가서 나물을 베어다 팔거나, 남의 집 품팔이로 생계를 이었다. 동네 부잣집댁에서 최둥이에게 산에 가서 남방아를 하나 해달고 부탁을 하였다. 그러자 최둥이는 아침밥이나 달라고 하여 그 날 아침 식사를 하고는 산에 올라가 온종일 굴무기(느티나무:작업하기 어려운 나무)나무를 깍아 남방아를 만들었다. 저녁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아 동네에서 걱정을 하였다. 늦은 밤 되어야 최둥이는 남방아를 머리에 쓰고 동네로 내려와서는 그 집 마당에 엎어 내려놓았다. 그러면서 "이 남방아를 제대로 일으켜보세요"라고 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한번 일으켜보라고 하니, 주변에 있는 성인 여러 명이 일으켜보려고 하였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장사는 두 손을 쓰지 않고, 한 발로 남방아를 걷어차 일으켜 놓았다.

참고문헌

- 제주도교육연구원 1994『제주의 서당교육』, 시민당인쇄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8『제주신당조사 - 제주시편-』, 도서출판 각.
- 제주특별자치도인력개발원, 제주제주발전연구원 2008『제주여성문화유적』, 도서출판 각.
- 제주교육박물관 2001『탐라의 효자 · 열녀전』, 고려인쇄.
- 노형지편찬위원회 1996『노형지』, 성심인쇄사.
- 광령1리 1990『광령약사』, 재승종합인쇄사.
- 외도동향토지편찬위원회 2005『외도동향토지』, 도서출판 각.
- 제주민속연구소 1975『남국의 지명유래』, 한일인쇄사.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제주도 세시풍속』, 일진사.
- 해안초등학교 2012『해안교육』.
- 해안어린이집 2012『운영계획서』.
- 광령초등학교 2012『광령교육』,
- 제주영송학교 2012학년도 〈영송교육〉편람.
- 외도초등학교 2012『외도교육』, 외도초등학교인쇄실.
- 하을땅어린이집, 2012. 〈보육운영안내〉.
- 제주문화 1997『제주민속론』, 제주문화.
- 제주도 1997『제주민속유적』, 나우인쇄출판사.
- http://www.jejusi.go.kr/. 2012. 8. 25. 08:50.